

회원의 격려와 응고

다같이 좋은藥



실무진의 입장에서

출판부장 林 榮 子

「세계 女性の 해」가 우리의 뇌리에 새로운 의미를 남긴채 어느덧 새해가 目前에 닥아왔다.

이제 새삼 “회원에게 바란다”는 題目을 가지고 펜을 드니 우선 實行部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反問을 해야 되겠기에 주춤짐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 3年餘의 세월동안 국내의 어느 회원과도 本誌를 통한 無言의 對話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상기해 본다.

본회에는 현재 약 1만5천명의 회원이 있다. 그리고 해마다 3천여명의 간호원이 배출되면서 本人들과 本會와의 關係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회원등록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多數의 회원들이 다같이 지닌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大體로 볼때, 간호원 면허소지자라는 점과 한결같이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절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선택한 직장에 따라서 임상간호원일 수도 보건의간호원일 수도 있으며 교육자일 수도 행정자일 수도 있다. 이처럼 회원의 직업지의 성격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협회를 향한 회원의 要求도 깊고 넓어서 협회의 책임이 크고 사업이 방대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會務에 임하다 보면 국내의 각지에서 전해오는 회원의 서신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 어느 회원의 편지에선, “협회지를 통해 간호의 발전상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협회활동에 감사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협회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든든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 어느 회원의 서신에선 “협회가 회비만 받았지 회원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고 신랄하게 따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부의 입장에서 볼 때 두가지 요소가 다 좋은 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관심이 없을 땐 격려도 할 수 없고 비판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의 像이 이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좋게도 나쁘게도 또는 무능하게도 유능하게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止揚할 結果 指向할 點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최소한 내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겠고 우리는 협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곧 닥아 올 희망의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새롭고 지혜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부디 원고지에 담아 편집부보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연구생활을 통해 마련된 玉稿가 있으실때 본회에서도 출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再考해 주시기 바란다. 전문서적 발간을 통해 본회 출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때 본회가 後陣 간호학도들에게 훌륭한 교육자로 제공의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며 아울러 출판문화 창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간호학 드서는 간호협회가” 하는 自給自足の 能力을 어느 職種보다도 앞서 과시하게 되는 一石二鳥의 結果가 될 것이다.

부디 남은 이해를 더욱 뜻깊고 보람있게 그리고 행운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